

도시명	헨트(Ghent)
국가	벨기에
인구	260,341명
정책 또는 사례명	헨트시 푸드세이버스
카테고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예방, 관리
사례 설명	<p>헨트시에서는 전통적인 도소매 유통 시스템에서 남아도는 음식물의 양이 매우 많았다. 이와 동시에 도시 차원에서 먹거리 빈곤과 영양실조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헨트시에서는 발생하는 잉여식품에 비해 사회적 기업들을 통한 음식물 회수나 재분배 등의 비율이 낮았다. 이에 헨트시와 사회복지부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성했고, 잉여식품의 수요와 공급을 잘 연결할 수 있는 운송 플랫폼 운영을 결정했다.</p> <p>본격적인 플랫폼 운영을 위해서 2년간의 협의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7년 3월 마침내 '푸드세이버스(Foodsavers)' 플랫폼이 개설되었다. 이 플랫폼에서는 도매시장과 지역 소매점 들로부터 잉여식품들을 취합하여 헨트 시에 있는 사회적 기관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들은 푸드뱅크, 사회적 레스토랑 및 사회적 슈퍼마켓 등이 있었다.</p> <p>플랫폼 목표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목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 FAO에 따르면 헨트시에서 버려지는 100톤의 음식물 쓰레기는 254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따라서 2017년에 100톤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목표였다. -사회적기업 고용: 푸드세이버스 플랫폼은 장기 실업자들을 고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작업자들에게 운송 기술을 전수하여 정규 노동 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목표는 장기 실업자 10-12명을 고용하여 다양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것이었다. -빈곤 퇴치: 잉여식품은 주로 빈곤층에게 분배되고 있다. 특히 빈곤층들이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빈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빈곤 퇴치를 위한 구조적인 방식으로는 고려되지 못했다. 따라서 먹거리 빈곤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음식에 대한 부족한 접근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맡기로 한다. <p>플랫폼 운영 10개월 뒤 결과는 놀라웠다. 300 톤 가량의 음식물들이 수거되어 재분배되었다. 약 762 톤 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가장 많은 잉여식품은 과일과 채소였다. 172,000개의 과일과 채소가 19,000명에게 재분배되었다. 수거된 음식들은 저소득 가정이나 사회적 레스토랑의 개별 식사에도 제공이 되었다. 이미 19명의 장기 실직자들이 푸드세이버스 프로그램에 투입되었다. 잉여식품물들은 총 58개의 사회적 기업, 24개의 소매점, 1개의 도매상 및 2개의 소매 유통센터, 1개의 유기농 농장 및 1개의 기업을 통해 유통되었다. 헨트시의 푸드세이버스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국내외 다른 도시들에 귀감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3회나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p>

정책시작일 및 현황 (진행/완료여부)	2017년 3월 현재 진행중
주체 및 이해관계자 참여현황	헨트 시: 기후 및 환경과 OCMW: 사회복지과(프로젝트 조직) 기타 프로젝트 파트너: 잉여식품 제공: REO(신선식품 도매시장), Makro, Delhaize, Colruyt, Aldi and Lidl와 같은 소매점, 1개 유기농 농장 및 기업 58개의 푸드뱅크, 사회적 레스토랑 및 사회적 슈퍼마켓 현재 학교들과 같은 새로운 파트너들을 포섭할 기회를 탐색 중.
접근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인력 및 운송 수용능력을 활용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및 관심을 가진 소매점들과의 협의(2014) - 향후 발생할 잉여식품들을 최선으로 사용하고 성공적인 사업사례 개발 및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새로운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연구 진행(2015) - 접근방법 및 투자에 대한 정책적 합의(2016) - 필요한 자원: 냉장트럭, 냉장유통셀, 인력고용(2016-2017 1분기) - 1차 운영 개시(2017년 3월) - 투자증진 및 확대(2017년 6월) - 2017년 연간보고서 발행 및 2018년 행동계획수립(2018년 1분기)
참고자료	2016년 12월 8일 복지위원회가 프로젝트 및 관련 예산에 대해 공식 승인을 했다. 관련 문서는 첨부자료를 참고(네덜란드어). 또한 향후 운영목표에 대한 내용을 담은 Ghent en Grade 개요 문서에 이니셔티브로 채택. 22페이지 참고. 2018년 초, 연간 보고서가 수정됨. 요약은 첨부한 홍보자료 참고.
혁신사례	<p>잉여식품물을 수거하고 재분배하는 방법 자체는 혁신적이지 않다. 그러나 대도시 차원의 잠재성을 직접 정책으로 펼치는 것은 다양한 방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혁신적이다. 도시들은 먹거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최선의 방식들을 연구하고 있다. 지역 또는 소규모 도시 수준으로도 많은 놀라운 이니셔티브들이 생겨나고 있다. 도시는 더 많은 양의 더 많은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지역 내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를 위한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도시의 역할이 정책이나 법안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p> <p>또 다른 혁신적인 특면은 사회적 고용의 중요한 역할이다. 운영부서의 많은 업무들이 장기 실업자들로 운영이 되거나 노동 시장에서 보기 드문 기술들로 훈련을 받고 있다. 특히 운송 기술의 수요는 높다. 따라서 푸드세이버스가 제공하는 작업 경험은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해 준다. 목표는 푸드세이버스의 작업 경험을 디딤돌로 삼아 정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다. 푸드세이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실직자들의 수는 상당하다. 처음 10개월동안 19명의 작업자들이 고용되었다. 벨기에를 비롯한 해외 도시(중국까지!)들의 푸드세이버스에 대한 높은 관심은 우리 이니셔티브가 얼마나 선구적인 역할을 이끌어가는지를 증명하고 있다.</p>

영향

프로젝트 시작과 함께 다음과 같은 명확한 목표들을 설정:

1. 연간 100톤의 잉여식품물 재분배를 통해 254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2. 10~12명 장기 실직자 고용
 3. 최소 20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들과 협업하여 빈곤층의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 접근성 개선
- 프로젝트 운영 10개월 뒤 당초 기대를 뛰어 넘는 놀라운 결과들을 발견했다.

10개월 뒤 최초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 재분배한 음식물의 양: 총 64,395개 식품 300,34톤.
- 잉여식품물 제공 파트너: 24개 소매점, 1개 도매시장, 2개의 소매유통센터, 1개 유기농 농장 및 1개 기업.
- 빈곤층에게 잉여식품을 유통한 파트너: 헛트 시 58개 지역 빈곤 기관 및 사회적 레스토랑
- 제품 및 음식물 꾸러미를 받은 빈곤층 수: 18,971명
- 재분배한 제품들 중 신선 과일 및 채소 비율: 68%
- 이산화탄소 감축 량: 762톤
- 고용된 장기 실직자수: 19명

사회적 포용성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주체들의 포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후와 환경과, 노동과 사회복지과와 같은 다양한 시 부서들이 구조적인 협업을 이룬 결과이기도 하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세 개의 부서들은 모두 각자의 목표에 부합하였고, 정책 실현을 위한 각자의 예산을 한데 모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운영팀들의 승인 절차를 통과할 수 있었다.

주제적인 포용성과 별개로 명확한 사회적인 포용성도 보여주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시민사회기관들과 사기업들(소매 및 도매시장) 참여로 개 발이 가능했다. 이 다양한 주체들은 헛트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했고 향후 프로젝트 발전과 규모확대를 위해 강한 연대를 펼쳤다. 잉여 식품 재분배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파트너와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피드백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푸드세이버스가 사회적 기업, 푸드뱅크, 사회적 레스토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와 부가가치는 행위자들에게도 높은 인정을 받고 있다. 푸드세이버스는 행위자들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돕고 있다.

지역적인 관점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가진 주변 도시들 과의 협업과 시너지 확대가 기대되는 바이다.

역경지수

서유럽 도시들의 빈곤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날 헨트시의 20%의 아동들이 빈곤가정에서 출생한다. 빈곤은 불충분한 소득 문제를 뛰어넘는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푸드세이버스와 같은 고용프로젝트를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적인 방식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먹거리 접근에 있어서 푸드세이버스는 직접적이고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의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점심이나 가정에서 더 건강한 식단으로 저녁상을 차리는 것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필요성에 대응하고, 나아가 노동 시장진입을 강화하는 노력들의 결합은 필요한 예산을 자유롭게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다.

헨트시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역경지수 중 하나는 바로 먹거리와 먹거리 유통에 대한 복잡한 법률이었다. 법안들이 항상 이러한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준비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법률적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리 기관(FAVV, 연방 농업부 등)과 논의를 거쳤다.

P2P 기술지원계획

많은 도시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관리하고 있다. 헨트시가 개발한 시스템의 장점은 다른 도시들과는 차별된 전략적인 목표, 즉,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빈곤퇴치 및 고용역량강화이다. 지방 및 상위 기관(예:유럽 전체)의 법안은 잉여 식품 재분배에 대해 어느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운송, 고용, 수량 등에 관한 경험은 관심있는 다른 도시들과 공유할 수 있다. 우리의 접근방식과 최초 사례 등은 이미 국내외 회의(예: EC, RUAF)를 통해 관심을 가진 도시들과 향후 교류 의지를 확인했다. 유럽지역 및 해외 다수 도시(중국, 스웨덴, 네덜란드)들의 방문단은 이미 푸드세이버스 운송 센터를 방문했고 유통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 따라서 P2P 기술 지원의 경우 향후 관심 도시들과의 심층 교류를 통해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